

분류의 다양성과 원리: 지식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정우* · 심경호** · 이상욱***

세계 속의 대상을 인지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그와 관련된 지식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우선 동서양의 사유에서 분류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서술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분류가 그저 다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특정한 원리가 숨어 있으며, 그 내재한 원리가 특정한 종류의 지식의 탄생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점을 보 이려 노력한다. 이 작업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2절에서는 서양 자연 과학에서 분류가 어떻게 수행되었고 그것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의의가 무엇인 지를 주로 ‘자연종’ 개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해명한다. 3절에서는 서양 인 간과학이 대상들을 어떻게 분류했으며, 그러한 분류에서의 존재론적 재분절화 가 어떻게 새로운 인간과학을 도래하게 했는지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조선 시

† 이 논문은 고등과학원 초학제 연구프로그램의 패러다임-독립연구단이 수행 중인 초학제적 공동연구(주제: 분류, 상상, 창조: 사유 패러다임의 교차분석 과 새로운 학문방법 및 지식개념의 모색)의 결과물이다. 논문은 각각 유럽 철학, 한문학, 영미철학의 지적 배경을 가진 세 연구자의 공동 연구를 통해 얻어졌다. 낯선 형태의 논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 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서로 다른 학문적 스타일을 조정하며 공통된 주 제로 논의를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공동 연구자들은 그 어려움에 상 응하는 지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상욱은 2절을, 이정우는 3절을, 심경호는 4절의 초고를 집필했다. 최종 원고는 세 저자 모 두의 공동 검토를 통해 완성되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paideia@khcu.ac.kr.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sim1223@korea.ac.kr.

*** 한양대학교 철학과, dappled@hanyang.ac.kr.

대에 이루어진 분류의 작업이 어떻게 성리학적 분류 체계로부터 경험적 분류 체계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유서(類書)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얼마나 다양한 원리들에 입각해 분류가 이루어졌는지와 그러한 분류 작업이 존재론적 전환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의 탄생에 기여했는지를 탐색한다.

【주요어】 분류, 지식의 탄생, 자연종, 존재론적 재분절화, 유서(類書)

1. 머리말

언어란 인간에게 신체만큼이나 근본적이다. 인간에게 ‘산다’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서 사는 것이다. 언어는 우리의 눈에 덮인 보이지 않는 그물과도 같다.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언어를 투영해서 본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떠올리든 떠올리지 않은 ‘나무’라는 말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무를 보기는 힘들다. 다른 기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감각과 정신이 사물들과 만날 때면 언제나 그 사이에서 언어라는 보이지 않는 막이 매개된다. 그물/막이 격자로 되어 있듯이, 인간의 언어 또한 격자로 되어 있다. 언어의 체계는 대개는 집합론적으로 짜여 있다. 한자에서의 부수의 존재는 이 점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언어의 이런 집합론적 체계는 ‘분류’라는 행위를 통해서 성립한다. 우리가 언어를 매개해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곧 언어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분류체계를 매개해서 본다는 것을 뜻한다. 의식적으로 떠올리든 떠올리지 않은 “나무는 식물에 속한다”는 분류체계를 떠나서 나무를 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류체계는 우리 삶에 안정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고착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분류체계를 수시로 수립해야 한다면 몹시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 반면 고착화된 분류체계를 따르는 삶은 늘 석화(石化)될 위험에 처한다. 이 점에서 분류의 문제는 습관의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질서와 안정을 요하는 분야일수록 분류체계의 지속을 지향하고, 그 반대의 성격을 띠는 분야일수록 분류체계를 뒤흔들고자 한다. 학번, 군번 등등의 ‘~번’이나

주민번호, 주소 등등이 전자의 예라면, “수술대 위의 우산과 재봉틀”(로트레아몽)은 후자의 예라고 하겠다. 전자의 경우 ‘낮선 것’을 기피하며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해도 기존의 틀에 흡수하기를 원하지만, 후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낮선 것—기존의 사유를 흔드는 비-사유(non-thought)—을 찾아 나선다. 퍼스의 용어로 전자는 토큰을 타입으로 흡수하기를 원하지만, 후자는 토큰을 통해 타입을 바꾸기를 원한다.¹⁾ 들뢰즈와 가타리의 용어로 전자는 포획을 지향하며, 후자는 탈주를 지향한다. 물론 늘 그렇듯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들은 순수 포획과 순수 탈주가 아니라 양자의 복잡한 섞임이다. 미셸 푸코는 『말과 사물』의 서문에서 보르헤스가 인용한 “중국의 어떤 백과사전”을 보았을 때 터뜨렸던 웃음을 통해서 이 문제와 조우하게 되었음을 말한다.²⁾

누군가가 백과사전을 1) 서울에 있는 것, 2) 이빨이 상한 해마, 3) 도라예몽, 4) 내 여자친구, 5) …… 식으로 찢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1)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고, 2)는 확인할 방법이 묘연할 뿐만 아니라 ‘상한’의 외연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3)은 만화영화의 상상적인 주인공이고, 4)는 백과사전에 등록될 성격이 아닌 사적인 내용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항목들 하나 하나는 그 나름으로 규정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다. 여기에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1), 2), 3), 4), 5), ……라는 열거, 더 정확히는 이 숫자들(또는 a, b, c, d, e, …… 같은 알파벳들 등등)의 순서이며, 이 숫자들 **사이의 공간**, 그 연결고리의 논리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항목들이 놓여 있는 공통의 장소, ‘면(plan)’ 자체이다.

인류 역사를 수놓은 각각의 문명은 나름대로의 정합성을 띤 각각의 ‘면’을 구성함으로써 존립할 수 있었다. 독이 있는 식물과 없는 식물의 분류에

1) 우리의 맥락에서는 퍼스의 규정보다는 인지과학적 규정이 더 도움이 된다. 군지-페기오 유키오의 논의가 기본적이다. 군지(郡司) (2013) 참조.

2) “사물들의 무질서한 요동을 완화해 주는 정돈된 표면과 평면을 모조리 흔여뜨리고 우리의 매우 오래된 관행인 동일자와 타자(the same and the other)의 원리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오래도록 불러일으키고 급기야는 사유, 우리의 사유, 즉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지리가 각인되어 있는 사유의 친숙성을 깡그리 뒤흔들어 놓은 웃음[……].”

서 예를 볼 수 있듯이, 분류는 오직 지적인 맥락에서의 추구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북아의 본초학은 신농(神農) 같은 성인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실험(자신의 몸으로 행한 실험)을 거쳐서 성립할 수 있었다. 역으로 말해 우리는 상이한 분류체계에서 상이한 삶의 양식을 읽어낼 수도 있다. 생존을 위해 설색(雪色)의 미묘한 차이들을 구별해낼 필요가 있는 극지방의 사람들과 날씨 변화를 알려주는 바람의 여러 ‘종류’를 구별해낼 필요가 있는 열대 지방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발전시켜 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면’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은 각 문화가 전제하는 ‘존재론적 분절’의 다양성과 그것들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 드러낸다. 영어의 ‘uncle’이 한국 친족체계에서의 ‘아저씨’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잘 나타나듯이, 존재론적 분절들 사이의 공약가능성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 때문에 분류란 임의적인 것일 뿐이라는 단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하나의 분류체계가 성립하려면, 거기에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반드시 일관성/정합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류가 일정한 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분류와 지식의 탄생 사이의 본질적 연관성을 부각시킨다. 분류 과정이 어떤 특정한 원칙과 때로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면, 그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지적 노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독성이 있는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분류하려는 노력은 지구상의 식물을 인간에게 이로운지의 여부로 분류하려는 시도이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식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해롭다’는 것은 무엇인지, ‘독’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서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모두는 당연히 식물학의 지식이 탄생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존재론적 재분절화(ontological re-articulation)**의 과정은 **하나의 지식이 탄생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글에서 한편으로 동서양의 사유에서 실제 이루어진 분류의 ‘다양성’ 자체에 주목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분류체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 줄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그러한 분류 작업들에 내재한

각 ‘원리’를 추출해내고 그러한 원리가 특정한 종류의 지식의 탄생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우선 2절에서는 서양 자연과학에서의 분류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새로운 지식의 탄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해명한다. 그 후 3절에는 서양 인간과학이 대상들을 어떻게 분류했으며, 그러한 분류에서의 큰 전환이 어떻게 새로운 인간과학을 도래케 했는가를 해명한다. 마지막 4절에서는 조선 시대에 이루어진 새로운 서지 분류의 시도가 어떤 답론사적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다룬다. 이렇게 여러 지역,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분류의 작업이 얼마나 다양한 원리들에 입각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새로운 분류(존재론적 재-분절)의 원리가 새로운 지식의 탄생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본 논문을 통해 해명될 것이다.

2. 서양 자연과학에서의 분류와 지식

서양 자연과학의 분류 체계와 지식이란 누구에게도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이다. 단순히 이 주제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점은 ‘서양 자연과학의 분류 체계’나 ‘서양 자연과학의 지식’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³⁾ 물론 어떤 주제를 잡더라도 당연히 세부적으로 고찰해 들어가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려는 점은 이처럼 거시적 관점에서는 동질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집단조차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변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서양 자연과학’이라는 범주 자체의 문제점과 그것이 ‘분류’와 ‘지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갖는 중대한 함의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과학의 역사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연구 활동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의 난점과 설사 특정 시기를 택하더라도 서로 다른 분류 체계를 활용

3) 이 점을 생생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잘 보여주는 연구로 Daston and Park (1998)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각종 진기한 대상과 그것의 질서는 3절의 논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서양 자연과학에서의 분류의 문제를 역사적 존재론의 시각에서 고찰한 Hacking (2004)도 유용하다.

하여 자연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 분야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그 합의의 핵심이다.

이 합의가 무엇인지 해명하기에 앞서 무엇이 아닌지를 우선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시기의 자연과학 혹은 보다 정확하게는 현재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되는 당시의 학술 연구 분야 사이에는 분명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장은 서로 다른 시기의 자연에 대한 연구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거나 한 연구 틀에 익숙한 사람은 다른 연구 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과 이론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가능하다면 통제하려는 노력은 서양의 자연철학(19세기 이전까지의 자연과학의 명칭)의 역사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된다. 이런 자연에 대한 탐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즉 어떤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어떤 ‘지식’을 산출했는지 또한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열린 마음’을 갖고 파악하려 노력하는 현대의 학자에게 충분히 이해가능하다.⁴⁾

그러나 각 과학들 사이에 간단히 배우기 힘든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쿤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자면, 자연에 대한 탐구의 역사에는 수많은 패러다임이 활용되었는데, 이 패러다임은 서로 많은 부분이 중첩되었고 당대 자연철학자(과학자)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비교되고 평가되었다. 한편, 각각의 패러다임은 나름의 독특한 분류체계(taxonomy)와 정당한 질문을 규정하는 느슨한 규칙을 갖고 있었기에 공통된 언어로 직접 번역가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개는 부분적으로 ‘공약불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서양 자연과학의 역사에서는 서로 공약불가능한(하지만 이해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분류체계와 관련 지식 내용이 등장했기에, 이를 한꺼번에 묶어 ‘서양 자연과학’이라 지칭하기 어렵다. 특히 보다 오래된 시기의 자연철학일수록 인간이나 도덕에 대한 철학적 탐색과의 연관성이 너무도 분명해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 즉 대충 19세기부터 고정된 의미에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자연과학’의 분류체계와 지식을 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의 책은 당시 이탈리아어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4) 이 작업이 정확히 쿤의 후기 철학이 집중하는 부분이다. Kuhn (2000) 참조.

평가되는데 이는 갈릴레오가 과학 연구만이 아니라 글‘도’ 잘 썼던 것이 아니라 당시 자연철학이 수사학이나 정치철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⁵⁾ 마찬가지로 뉴턴의 우주론은 후대 특히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방식에 입각할 때 ‘기계적’이기는커녕 신의 개입이 늘 기대되는 신학적 바탕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금속의 변화와 식물의 성장을 (유비가 아니라) 진정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생각한 것에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자연철학이 통합적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준다.⁶⁾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논의는 ‘현대’ 자연과학의 분류체계와 지식으로 한정한다. 논의 내용 중에는 19세기 이전 시기의 자연철학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여럿 있지만 잘못된 추론을 암시하지 않기 위해 일단은 자연과학 연구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20세기 이후의 분류체계와 지식의 특징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정해도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의 개별 분야가 사용하는 분류체계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연종’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1 자연종(natural kinds)과 분류체계(taxonomy)

자연종이란 ‘자연적(natural)’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집합을 말한다. 여기서 자연적 속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말은 임의적이지 않고 인공적이지 않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⁷⁾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내 방에 있는 사물의 집합은 개별 사물에 대해 분명하게 소속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집합이지만(예를 들어, 어떤 코끼리도 속하지 않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속한다), 그 집합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우발적(contingent) 이유로 내 방에 모여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유하는 속성을 찾을 수 없다. 물론 모든 사물이 1톤 이하라는 속성처럼 임의로 규정된 속성을 공유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까다로운 논점, 예를 들어 ‘1톤 이하이다’가 진정한 속성인지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므로 이 글의 논의에서는 일단 넘어가기로 한다.⁸⁾

5) 이상욱 (2014).

6) Westfall (1983).

7) Boyd (1999).

자연종이란 이처럼 우발적이거나 임의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속성에 의해 주어지는 집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특정 동물원에 모인 모든 동물의 집합은 자연종이 아니지만 코끼리는 자연종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코끼리가 진정으로 자연종인지 여부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보다 복잡한 문제이다.

자연종을 규정하는 속성은 인공적(artificial)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수집된 책 중 소설만을 모았다고 해보자. 이 집합의 구성원은 분명 ‘소설’이라는 속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어떤 물리적 대상을 ‘소설’로 분류하는 기준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되므로,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인공적이다. 그러므로 소설은 자연종이 아니라 인공종이다.

나중 논의를 위해서 좀 더 복잡한 인공종을 소개해보자. 길이를 재는 자의 집합을 생각해보자. 자의 집합의 구성원은 분명하게 공유하는 속성, 즉 ‘길이를 재는 도구’라는 속성을 공유한다. 이 속성의 특징이 기능적(functional)으로 규정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의 집합은 그러므로 이중적인 의미에서 인공종이다. 아마도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에서의 ‘자’의 집합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의 집합은 그 존재론적 근거 자체가 인간에게 의존하므로 인공종이다. 또한 자의 집합을 규정하는 속성은 기능적으로, 즉 ‘길이를 재는 도구’로 주어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분류들은 자의 경우처럼 기능적으로 주어지는 속성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집합’, ‘서울 100대 맛집’ 등도 넓은 의미에서 기능적으로 정의되는 인공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연종을 설명하면서 정작 인공종이나 임의적 속성으로 규정되는 집합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이 ‘자연적(natural)’ 속성인지를 존재론적으로 만족스럽게 서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적 속성은 반사실적 추론을 정당화한다든지, 자연법칙(laws of nature)에 등장한다는 등의 여러 제안이 있지만 각각은 나름대로의 난점을 갖고 있다. 실은 일단의 철학자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자연종 개념을 매우 ‘자연스럽

8) 관련 주제는 굿만의 고전적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Goodman (1978) 참조.

게' 만드는 정의가 있다. 하지만 그 정의는 특정 과학철학적 입장이나 인식론적 견해를 전제하기에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정의에 따르면 자연종은 자연에 '실재하는' 속성들에 의해 분명하게 서로 구별되는 집합으로 묶이는 것들이다.

자연종의 전형적인 예로 생각되는 주기율표상의 원소를 생각해보자. 원자번호가 79번인 금은 자연종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은 성형이 가능하고 빛이 나며 전기를 통한다는 물리적 성질을 공유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금은 모두 양성자 79개를 가진 원자핵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성질은 정말로 존재하는 자연적 성질이며 이 성질에 의해 필요충분적으로 금이라는 원소가 다른 모든 원소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금은 이런 의미에서 또 다른 귀금속인 은과 존재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된다. 모든 은은 광택이 나고, 전기를 통하고 일반적 조건에서 흰색을 띤다는 점에서 금과 구별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47개의 양성자를 가진 원자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금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후 논의를 위해 관련된 논점 몇 가지만 언급하자. 금과 은이 서로 구별되는 자연종이라고 할 때 이 구별은 존재론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금과 은이 자연적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자연종일 것이라는 생각은 자연철학에서 오래전부터 원소(element) 개념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주기율표의 형태로 완전하게 체계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지식의 발전, 즉 금과 은에 대한 인식론적 파악의 유무와 무관하게 우리는 금과 은이 그것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 존재론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화학 원소는 전형적인 자연종에 해당된다. 이런 방식의 생각에는 금과 은에 대한 우리의 과학지식은 오류로 판명되어 수정되거나 성장할 수 있지만, 금과 은의 '자연적' 속성은 우리의 인식론적 노력과 무관하게 자연에 실재하는 것이라는 직관이 깔려 있다. 결국, 자연에 실재하는 속성으로 자연종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실재론(Scientific Realism)이라는 과학철학적 입장과 상대적으로 잘 어울린다.¹⁰⁾

9) 주기율표의 성립 과정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그 과정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Scerri (2011) 참조.

금과 은이 임의적 속성이나 인위적 속성에 의해 존재론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분명 금과 은은 자연적 속성 이외에도 중요한 많은 속성을 갖는다. 둘 다 사회적으로 ‘귀한’ 금속으로 대우받으며 국제경제에서 특별한 기능적 지위 또한 갖고 있다. 하지만 금과 은이 갖는 이런 부가적인 속성이 상황에 따라 아무리 중요하게 간주되더라도 금과 은을 자연종으로 규정하는 속성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금과 은이 비자연적 속성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는 금과 은을 세계에 실재하는 자연적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자연종으로 규정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금은 원칙적으로 원자번호를 언급하지 않고 전기 전도도나 표면 속성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속성만으로도 자연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게다가 전기적 속성이나 표면 속성은 통상적으로 자연적 속성으로 간주된다. 결국 금과 은을 자연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연적 속성의 집합은 하나 이상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누군가 왜 금은 이러이러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지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물리학적, 화학적으로 보다 기본적인 속성, 예를 들어, 금의 외곽전자에 대한 양자화학적 계산에 의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의 원자번호처럼 보다 ‘기본적인’ 물리적 속성이 개별 금을 필요충분적으로 규정하는 다른 모든 속성들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자연과학의 여러 분과 학문들 사이에 위계적 구조를 상징할 때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때 존재론적 우선성은 대개 인과적 우선성으로 설명된다. 즉, 금의 전기적 특성이 이러이러한 이유는 금의 외곽 전자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금의 전기적 특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금의 외곽 전자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인과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이 그보다 덜 근본적인, 하지만 여전히 자연적인 속성에 인과적으로 (그렇기에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연적 속성에 대한 존재론적 환원주의로 연결된다.

10) 이런 생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Hendry (2006) 참조. 특히, 원소는 아니지만 화학의 역사에서 한 때 원소로 간주되었던 물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상반된 분석은 Chang (2012), Needham (2002) 참조.

자연과학의 여러 분과 학문들이 생산하는 지식에 등장하는 다양한 속성들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모두 자연적 속성이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기본 속성이 있고 나머지 속성들은 모두 그 기본적인 속성에 의해 발현되는, 즉 ‘수반되는(supervenient)’ 속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연적 속성에 대한 존재론 수준에서의 위계적 이해는 일부 철학자들에게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모든 과학적 설명은 보다 기본적인 과학이론에 의해 환원적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론적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로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주장 사이의 연결은 생각만큼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다.¹¹⁾

자체적으로는 매우 흥미롭지만 우리의 논의에는 다소 부수적인 두 논점을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가장 전형적인 자연종이라 할 수 있는 주기율표상의 원소조차 그 사례 모두 진정으로 자연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초악티늄족으로 알려진 원소, 즉 원자번호가 103이상인 원소들은 모두 과학연구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게다가 이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에 소량으로 생성된 원소조차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초악티늄족에 속하는 마이트너륨이나 뢰트렌튬은 진정으로 자연종일까?

이에 대해 이러한 원소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연적인 사실일 뿐이어서 존재론적 의의를 갖지 못한다고 답할 수 있다. 적당한 물리적 조건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 원소들이 얻어질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자연종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을 규정하는 자연적 속성은 역시 자연적인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자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구상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 원소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대응은 일견 그럴듯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자연종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적 속성의 집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연적 속성의 집합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11) 이 주제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Fodor (1974, 1997) 참조. 유사한 논점을 생물종을 중심으로 논의한 Dupre (1993)도 참조할만하다.

속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문제와 함께 나중에 논의할 생물학적 종이 자연종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자연종에 대한 통상적 이해는 자연종에 대해 본질주의적 생각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종에 대한 우리의 인식론적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과적 속성에 근거한 지시 관계로 자연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본 퍼트넘과 크립키 등의 견해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퍼트넘, 크립키 등의 본질주의와 자연종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본질주의가 자연주의적 해석을 옹호하는지 아니면 전제하는지, 혹은 그도 저도 아니면 그저 상호관련성만이 있는지 등이 논쟁의 핵심이다.¹²⁾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자연종을 자연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통해 분류하려 할 때, 각 자연종이 갖는 ‘본질적 속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자연종을 자연과학 연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만약 각각의 자연종에 해당되는 본질적 속성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자연종을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정의하려는 철학적 기획 전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 특수과학(special sciences)의 분류 체계와 존재론적 다원주의

자연종 개념은 화학 원소의 경우 비교적 깔끔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코끼리와 같은 생물 종(species)은 자연종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었다. 이는 자연철학의 전통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종을 본질적 속성을 공유하는 개체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오랜 흐름의 영향이다. 모든 코끼리는 긴 코를 갖고 두꺼운 피부를 가지며 모계 중심 집단을 이루며 생활한다는 자연적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자연종에 대한 개체군적 사고(population thinking)가 강조되면서 동일종에 속한 모든 개체가 빠짐없이 갖는 본질적 속성을

¹²⁾ Putnam (1975), Kripke (1980).

규정하는 일이 사실상 매우 어렵거나 설사 가능하더라도 생물계의 극히 일부의 (우리 인간에게 유난히 눈에 잘 띄이는) 생물만이 해당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¹³⁾ 예를 들어, 플라스미드 교환을 통해 자유롭게 유전자 조각을 공유하는 미생물에게 본질주의적 방식의 종개념은 처음부터 적용이 전혀 불가능하다.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의 경우에도 일부 변이를 예외로 제외하지 않고서는 가령, 남성과 여성으로 깔끔하게 양분되는 속성을 생물학적 본질로 간주하기 어렵다.¹⁴⁾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생물학적 종은 시작과 끝을 갖는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모든 종은 진화의 역사상 어느 시점에 나타났다가 다른 시점에 사라진다. 그 과정에서도 진화는 계속되기에 한 종이 처음 출현할 때의 형태적, 유전학적 특징은 그 종이 소멸할 시점의 형태적, 유전학적 특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종이 처음 출현할 때는 부모종이나 근연종과의 차이점은 매우 작아서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들 특징 모두는 개별 인간의 인생사와 유사하다. 개별 인간도 출생과 사망 사이의 단절된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 그리고 유아기의 모습이나 속성은 노년기의 모습이나 속성과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인간의 태아는 근연종의 태아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여 최근 생물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는 생물종을 자연종이 아니라 개체(individual)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종 개념이 생물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은 자연종 개념이 자연과학 일반에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¹⁵⁾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생물종의 경우에도 초악티늄족에 대해 고려했던 ‘잠재적 존재자’를 활용한 본질주의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기적 유전자’ 개념으로 잘 알려진 도킨스는 진화론적 과정에서 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태론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가능한 모든 생명체’의 공간을 고려했다.¹⁶⁾ 이 공간상에 모든 지점에 해당하는 생명체에는 존재할 수도 있었지

13) 이러한 생각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는 생물학자 마이어이다. 그의 생각은 자신의 분류 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Mayr (1969) 참조.

14) Ereshefsky (1998), Kitcher (1983).

15) Sober (1980).

만 지구의 진화 역사에서 우발적인 이유로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들이 절대 다수 포함된다. 각각의 생명체는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만을 제외한다면 자연법칙에 따라 엄밀하게 규정되는 물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건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런 잠재적 생명체 각각을 ‘종’으로 규정하면 초악티 늑족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연적 속성에 의해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종의 개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종 개념이 실제 생물학의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합성생물학의 맥락을 제외하면) 분명하지 않다.

자연종 개념이 생물학에서 ‘종’ 개념에 대해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상당수의 분류 개념은 앞서 설명한 기능종이다. 예를 들어, 뇌과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신경전달물질이나 생리학에서 결정적인 호르몬 개념 등은 그 대상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의해 분류된다. 예를 들어, 신경전달물질은 물질적으로는 대부분 펩티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경전달물질이 펩티드이거나 모든 펩티드가 신경전달물질인 것은 아니다. 신경전달물질은 물질적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에 의해 분류된다. 호르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호르몬이 단백질이지만 호르몬은 그것의 물질적 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기능에 의해 규정된다. 실제로 생물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대부분의 분류 개념은 기능종이다. 이는 대부분의 생물학 연구가 특정 생물학적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된다. 즉, 생물학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는 방식에 적합하게 생물학의 분류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과학 연구를 돕고 관련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데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류체계를 설정하는 연구 관행은 합리적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종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강하게 이해하는 것과 서로 충돌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잘 어울리는 방법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16) Dawkins (1996)은 이런 방향에서 생물종을 바라보는 ‘비역사적’ 접근을 잘 보여준다.

의 과학지식 성장을 돕기 위해 기능적으로 설정한 분류 체계가 자연계에 어떤 의미에서든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분류 체계 자체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자연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열린 문제라는 말이다. A로 시작하는 제목을 갖는 모든 책은 진정으로 그 속성을 갖기는 하고 그 속성이 책 찾기를 수월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책에 대한 본질적 분류가 알파벳순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문제는 생물학에서 두드러지지만 생물학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물리학과 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에 대한 탐구에서 기능적이거나 인공적인 분류체계의 사용은 매우 흔하고 생산적이다. 최근에는 화학의 경우에조차 ‘분자’ 수준에서는 자연종의 통상적인 특징을 벗어난다는 논의가 있다. 물리학에서도 특정 이론적 고려에 따라 설정된 수학적 특징들이 진정으로 ‘자연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¹⁷⁾

결국 이상의 고찰은 속성 수준에서의 존재론적 다원주의를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실제 차원에서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는 물질이 그보다 단순한 물질로 구성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속성 차원에서는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는 물질의 속성이 그보다 단순한 물질의 속성으로 완전하게 환원되지 않으며 일종의 ‘떠오름(emergence)’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떠오른 속성이 수반된 속성과 어떻게 다른지, 떠오른 속성이 부분적으로라도 인공적일 수 있는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2.3 통일과학의 가능성과 과학적 설명의 질문 의존성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과학의 분류체계는 자연종 개념만으로 깔끔하게 설명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현재 자연과학의 불완전함에 기인한 일시적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즉, 미래에 완성될 ‘이상적인’ 통일과학(Unified Science)으로서의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오직 자연종만으로 세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물론 이 경우에도 현실적인 지식의 활용 수준에서는 통일과학의 사용을 고

¹⁷⁾ 최근 끈이론(string theory)가 상정하는 각종 이론적 개념의 논쟁적 성격이 한 예이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는 Smolin (2006) 참조.

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도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양자역학 대신 고전역학을, 상대성 이론 대신 뉴턴 역학을 활용하듯이 필요에 따라 자연종을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핵심은 일부 논자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이상적 통일과학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실제 수준에서의 존재론적 일원론을 견지할 때 중복결정(over-determin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게다가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단합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재 우리가 가진 자연과학 지식의 본성을 고려할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자연과학은 특정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통상적으로 금속이라고 불리는 물질은 전기를 통할까? 왜 같은 서식처를 공유하는 생물들 사이에서도 종분화가 가능할까? 왜 두뇌를 적절한 방식으로 자극해서 특정한 행동패턴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조차 우리는 그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꾸며내는 경향이 있는가? 이들 문제는 각각 물리학, 생물학, 뇌과학 고유의 이론적 틀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이론적 틀에서는 개념적으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¹⁸⁾

결국 자연과학의 개별 연구 분야가 자신들의 이론틀 내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제기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러한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답변이 특정 패러다임 하에서만 온전하게 이해되고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 하나의 이론체계로 이 모든 질문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풍부한 과학적 지식을 산출하는 한, 개별 자연과학이 상정하는 다양한 (느슨한 의미에서의) 자연종들은 기본적 자연종으로 환원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자연적 속성에 대한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필요에 따른 분류체계를 활용할 때 자연과학 지식의 성장은 가장 생산적일 것이다.

18) 실은 물리학 내부에서조차 이론적 통합은 부분적이다. Yi (2003) 참조.

3. 서양 인간과학에서의 분류와 지식

서양 자연과학의 맥락에서 음미해 본 분류의 문제와 지식의 탄생 문제를 우리는 인간과학의 영역에서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과학의 영역에서도, 자연과학의 영역과는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절대적 분류의 어려움, 분류에서의 큰 전환, 그리고 존재론적 재분류에 의한 지식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자연과학의 맥락을 다룬 2절에서와는 달리, 이 2절에서는 역사학적(과학사적)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2절에서의 논의가 주로 분류 자체의 어려움 및 이 사실이 지식/과학에 대해 함축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절에서는 이런 함축이 지식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2절에서는 분류의 다양성과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적 분석을 행했다면, 3절에서는 이런 다양성과 원리에 의해 지식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행한다.

3.1 고전시대의 분류공간과 인간과학¹⁹⁾

서양 학문의 역사에서 고전시대는 분류학의 황금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셸 푸코는 일반문법, 자연사, 부의 분석으로 대변되는 고전시대의 인간과학들은 모두 경험의 결과 전체를 거대한 분류공간—‘표(tableau)’—에 배치하고자 했고 그런 배치를 통해 세계에 대한 총체적 상을 얻고자 했음을 상세히 해명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언어란 사물이 아니라는 것, 사물의 층위와 언어의 층위는 단적으로 구별된다는 것, 언어란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는 것, 언어란 세계 속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념의 등가물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언어 이해는 사실 고전시

19) 여기에서 ‘인간과학’이란 주로 프랑스에서 말하는 ‘les sciences humaines’를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의 인간과학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미셸 푸코(『말과 사물』), 프랑수아 자콥(『생명의 논리』), 미셸 세르(『라이프니츠의 체계』)의 분석에 힘입고 있다.

대에 이르러서의 ‘에피스테메의 변환(transformation de l'épistème)’, 쿤의 용어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16세기에 언어는 그 자체가 사물이었으며, 더 정확히는 표징/징후였다. 언어에는 밝혀내야 할 “의미의 두께”가 있었고, 이 의미의 두께는 일종의 계시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자마자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보석을 숨기고 있는 광맥과도 같은 글이 일차적인 것이 된다. 이로부터 이 시기의 두 가지 특징, 즉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과 읽히는 것, 관찰된 것과 이야기된 것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는 주석에 의해 언어/지식의 끝없는 증식이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예컨대 알드로반디의 『뱀과 용의 역사』 같은 책은 뱀풍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는 “생물학자”로서의 알드로반디가 뱀풍보다 더 나쁜 학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에피스테메가 뱀풍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전시대로 넘어가면서 언어의 체계는 스토아적인 3원 구조가 아니라 2원 구조로 바뀐다.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 그리고 양자를 이어주는 유사성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과 의미되는 것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 사이에서는 제3의 존재가 아니라 다만 순수한 어떤 기능 즉 지시/표상이 작동하기에 이른다. 기호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시하는’ 순수 기호로 바뀐다.²⁰⁾ 이제 문자는 그 의미의 두께를 잃어버린다. 박학(博學)의 전통도 무너진다. 책을 천권, 만권 읽은 것보다 단 한번 실제 본 것이 중시된다. 가시성(visibilité)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²¹⁾ 이렇게 해서 파문하게 되

20) 이전에는 하나의 기호가 어떤 유사성을 감추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무관한 말과 사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고전시대의 사유는 표상의 분석을 통해 답하고자 했으며, 근대적 사유는 의미와 의미작용의 분석을 통해 답하게 된다. 소쉬르의 ‘자의성’ 개념은 이 물음에 대한 한 답으로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1) 고전시대에는 **많이 보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보기가** 추구되었다. 또, 가시적이라 해서 모두 진리의 증거가 된 것도 아니다. 예컨대 색깔을 비롯한 ‘제2 성질’은 진리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 가시성이 무조건 표면적인 것만을 뜻한 것은 아니었지만(예컨대 현미경이나 망원경의 사용) 모든 보기는 표면적인 보기로 환원되어 이해되었다. 현미경은 기본적인 가시성의 영역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차라리 기본적 가시성의

는 르네상스적 성격의 언어는 문학에 의해 보존·계승되기에 이른다. 이런 흐름에서 호두가 뇌를 닮았기 때문에 뇌를 고칠 수 있다는 식의 유사성은 이제 지식의 형식이 아니라 오류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유사성의 증식이 멈추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비합리적’ 지식의 몽상이자 또한 매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베이컨의 ‘경험주의’는 단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피스테메 변환의 상이한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유사성의 증식을 동일성과 차이의 명확한 구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분석’의 방법이라든가, ‘측도’와 ‘순서’의 비교를 통한 질서의 파악이라든가, 가장 단순한 것을 찾으려는 시도들이라든가,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들의 추구,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구분 등등이 이런 맥락에서 형성된 생각들이다.

고전시대로의 이런 변환은 ‘표상(représentation)’ 개념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고전시대의 기호는 사물들을 표상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상 가능성을 자체 내에 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상의 표상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기호는 그것이 표상하는 대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면서도 그 대상을 자체의 공간 내에서 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거울이었다. 기호가 더는 사물이 아니게 된 것과 대칭적으로, 그것은 더는 상상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유사성이 오류의 계기가 된 것처럼 상상도 오류의 계기가 된다. 기호와 관념은 서로의 부분(副本)이며, 기호의 분석은 곧 관념의 분석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imagination’은 르네상스적인 상상이기보다는(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호들의 작용과 쌍을 이루는 이미지들의 작용이 된다. 대상과 기호와 관념/이미지가 거울상을 이루게 된다.

고전시대의 이런 이념은 보편적 순서의 과학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곧 ‘마테시스(mathesis)’이다. 그리고 보다 복잡한(오늘날로 말해 유기체를 다루는) 경우에는 ‘탁시노미아(taxinomia)’가 수립되었다. 단순한 자연물을 정돈하는 것이 문제일 때는 대수학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갖는 마테시스가

영역에서 제기된 문제의 하나, 즉 “가시적인 형태가 어떻게 세대의 흐름을 거슬러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용되었으며, 복잡한 자연물(경험에 주어지는 그대로의 표상 일반)을 정돈하는 것이 문제일 때는 탁시노미아가 활용되었다. 대수학에 대한 마테시스의 관계는 기호에 대한 탁시노미아의 관계와 같다. 마테시스가 수학적 등가성의 과학이라면, 탁시노미아는 질적 마테시스라 할 수 있다.²²⁾ 순서의 일반 과학을 위한 기획, 표상을 분석하는 기호의 이론, 정돈된 표에 의한 동일성과 차이의 배치가 고전시대 에피스테메의 주요 성격이라 할 때, 이 성격을 핵심적으로 응축한 것이 마테시스와 탁시노미아였다. 고전시대에는 자연의 연속성과 자연의 뒤엎힘이 맞물리는 형질의 과학인 자연사/박물학이 발달했으며,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필요나 욕망 사이의 등가관계를 확립하게 해 주는 기호의 과학으로서의 부의 분석(화폐와 가치에 관한 이론)도 발달했다. 이런 지식들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마테시스와 탁시노미아였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지식 역시 바로 이 장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

언어학의 예를 들어 보자. 탁시노미아에 의한 언어 연구는 곧 언어의 분류의 문제였다. 언어를 일정한 공간에 위치시켜 분류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자에서 잘 나타난다. 한자의 부수(部首)들은 이미 세계에 대한 대분류를 함축하며, 거기에 덧붙은 부분들은 소분류를 함축한다. 서양의 경우 이런 분류는 ‘일반문법(*grammaire générale*)’이라는 담론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논리학적인 방식으로든 시도되었는데, 라이프니츠가 제시했던 ‘보편기호법’이나 ‘조합술(“아르스 콤비나토리아”)’ 같은 경우가 그 전형 을 보여준다. 이런 논리학적 노력에 상응해 언어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포르루아얄에서 시도한 일반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전시대(17세기와 18세기)를 지배했던 에피스테메/패러다임은 ‘표상’

22) 마테시스, 탁시노미아와 더불어 삼각 구도를 형성한 것은 게네시스였다. 게네시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이는 경험의 자료들을 정리하려는 분야로서, 일종의 연대기였다. 탁시노미아가 질적 마테시스라면, 게네시스는 역사학적 성격의 탁시노미아였다고 할 수 있다. 마테시스가 19세기 이래 수학적 과학(*mathematical sciences*)로 이어졌다면, 게네시스는 역사학(*history*) 및 역사/시간을 중시하는 철학들의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탁시노미아는 여러 형태의 분류학(*science of classifications*)으로 변환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었다. 기호는 관념이 겉으로 표현된 형태인 동시에 대상을 지시대상으로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상과 관념과 기호가 마치 거울로 서로를 비추듯이 상응관계를 형성한 ‘표상’이라는 구도가 이 시대의 지식 개념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상에 비추어 과거의 혼란한 표상들은 모두 정리되어야 했고 깔끔한 표상체계로 다듬어져야 했다. 대상과 관념 사이의 상응을 함축하는 경험주의적 논의, 식물의 부분들과 상응하는 기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식물학에서의 분류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고전 시대의 ‘이성’은 이렇게 표상의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이 언어의 영역에서 나타난 것이 포르루아얄의 일반문법이다.

일반문법은 언어의 시간적 측면, 그 역사가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분석’이었다. 그리고 분석의 기초 단위는 ‘낱말들’과 낱말들의 결합체인 명제였다. 명제는 두 낱말 즉 주어와 술어를 다른 하나의 낱말 즉 동사로 결합시킴으로써 성립하며, 때문에 분석은 곧 동사를 축으로 하는 명제의 분석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명사들로만 구성된 문장도 동사가 들어간 온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분석되었고, 감탄문을 비롯한 평서문 이외의 명제들도 ‘be 동사’를 핵으로 하는 평서문으로 환원되어 분석되었다. 이 점에서 이 담론의 성격은 원자론적이었고 논리학적이었다. (이런 식의 사유는 프레게 이후의 현대 논리학과 언어철학에서 부활된다) 분석이 집합론적 성격을 띠는 한에서 이 담론은 이미 분류학적 사유를 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정 정도의 시간적-역사적 측면이 가미되었는데, 각 낱말은 일정한 변화를 겪어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사유는 언어를 공간 속에 배치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 담론이었다.

3.2 분류에서의 대전환과 근대적 인간과학의 탄생

19세기에 이르러 사물들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방식은 거대한 변환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런 존재론적 재분절은 새로운 지식들을 낳기에 이른다. 사물들의 새로운 분류는 결국 새로운 존재론의 등장이며, 이 존재론을 기반으로 학문의 체계 전반에 변동을 겪게 된다. 19세기에 이루어진 인간과학의 변환은 이 점을 특히 잘 드러낸다. 이 변환에서의 핵심어는 **시간**이라

고 할 수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의 ‘흑체’의 예라든가 ‘힉스 입자’의 예 등에서 잘 드러나듯이, 지식의 발달을 추동하는 원인들 중 하나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의 출현이다.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있었던 서양 인간과학에서의 거대한 변환도 고전시대의 표상체계에 잘 들어오지 않는 현상들에 의해 추동되었다. 언어가 단지 논리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체계일 뿐만 아니라 실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변화해 온 존재라는 사실의 발견이 그 예이다. 이런 변화는 생물학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퀴비에의 비교해부학을 통해서 고무된, 생명체는 단지 표면적 형질들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심층적인 ‘유기적’ 구조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의 발견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고전시대에 힘을 발휘했던 재현의 구조, 형질들의 ‘표’, 탁시노미아와 마테시스 등등은 ‘표층적인’ 지식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곧 사물들의 분류가 더 이상 표면적 형질들의 체계를 통해서만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심층적인 구조에 입각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뜻한다. 예컨대 상품의 ‘가격’은 고전시대의 체계를 벗어나 ‘생산’과 ‘노동’ 개념에 입각해 완전히 새롭게 형성되기에 이른다. 학자들은 공간적인 분류가 아니라 사물들의 ‘기원’/‘시원’을 찾고 모든 것을 시간의 좌표 위에, 역사의 흐름 위에 놓기 시작했다.

생물학을 예로 들어 보자(‘생물학’이라는 지식 자체가 이런 대전환을 계기로 해서 정립된다).²³⁾ 유기체의 형질들, 예컨대 식물의 형태, 수, 크기, 촉감 등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던 분류는 ‘조직화의 도안(plan)’ 개념이 생겨나면서 피상적인 것으로 전락했다. 생명체의 부분들은 훨씬 심오한 관련성에 입각해 배치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도안’ 개념을 통해서 생명체는 입체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 탐구 분야에서의 담론학적 배치도 변화를 겪게 된다.²⁴⁾ 분류학의 대상은 형질들의 분류에

23) 생물학은 일반적으로 인간과학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푸코가 잘 보여주었듯이, 고전시대로부터 근대로의 변환에서 생물학의 변환은 경제학의 변환, 언어학의 변환과 상동관계(homology)를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학과 함께 논하는 것이 유용하다.

24) ‘담론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셸 푸코 (2004), 이정우 (2011).

적합했던 식물학 중심에서 조직화의 도안을 흥미롭게 드러낼 수 있는 동물학으로 이행한다. 퀴비에의 해부학은 이런 변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다른 한편, ‘기능’의 개념은 예전보다 훨씬 중요한 함축을 띠게 되며 기관들이 심층의 기능에 의해 어떻게 배치되었는가가 속속 밝혀지게 된다.²⁵⁾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공간으로부터 시간으로의 변화이다. 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있어 실현된다. 따라서 기능 개념의 심화는 단순한 공간적/가시적 배치의 차원을 넘어 ‘생명’ 자체의 존재방식에 대한 심오한 통찰들을 가능케 했다. ‘진화론’의 시대가 온 것이다.²⁶⁾ 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죽음’이 새롭게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대부터이다.

경제학 또한 유사한 과정을 겪는다. 스미스의 경우만 해도 재현의 구도는 여전히 그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노동가치설은 노동의 양과 상품의 가격 사이에 정확한 재현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카르도에 이르면 이런 재현의 구조가 깨어지면서 노동 그 자체와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교환가치’의 독자적 위상이 분명해지게 된다. 물론 그림에도 노동은 가치의 **기원**으로서 여전히 중핵적인 의미를 띠며, 모든 교환의 가능조건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었다. 정말 달라진 것

25) 그러나 심층에 대한 이런 인식은 끝이 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현대 철학의 주요 정향들인 칸트주의=구성주의와 실증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칸트와 실증주의는 공히 ‘현상계’에 지식을 국한시키고자 했으나(칸트의 ‘물자체’ 개념은 이 점을 잘 드러낸다), 칸트가 현상의 ‘잡다’적 성격에 기반해 구성주의를 전개한 반면 실증주의자들은 현상들의 존재론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서술·정리하고자 했다.

26)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적인 낚아스에서의 ‘생물학’이 탄생한 것은 바로 이런 존재론적 혁명을 통해서였다. 14세기 스콜라 철학자들의 존재론적 혁명이 결국 16~17세기의 물리학 혁명을 가능케 했듯이, ‘진화론’(사변적 진화론이 아니라 다윈의 진화론)의 성립이 생물학 자체를 새로운 차원에서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대에 크게 흥기한 ‘생기론’은 비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생물학이라는 과학을 물리학과 변별해 주고 또 당대에 이루어진 존재론적 관점 변화를 정확히 표현해 줌으로써 생물학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고 해야 한다. 스콜라 철학을 물리학사의 악역으로만 보는 것이 단견이듯이, 생기론을 과학적 생물학과 대치하는 그 무엇인 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과학사적 무지의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은 노동이 가치의 기원으로 인식됨으로써, 논의의 중심이 유통으로부터 생산으로 옮겨갔다는 점일 것이다(이는 상업자본주의로부터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곧 신체, 시간, 역사 등이 경제학의 주제가 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경제학이 칸트적인 ‘유한성’의 철학이나 열역학 제2 법칙 등과도 조응하면서 회소성, 죽음, 욕구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유사한 변화를 언어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슐레겔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비교해부학이 생명체들의 가시적인 형질들의 배치를 넘어 자연사의 심층적인 흔적들을 드러내주었다면 역사적 언어학은 언어에 묻어 있는 역사의 두께를 드러내기 시작함으로써 예전의 포르투아얄의 논리학을 대체했다.²⁷⁾ 아울러 역사의 두께가 함축하는 각종 정치적 문제가 드러난 것도 새로운 변화의 일환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낱말에 일어나게 되는 변모에 의해, 동일한 언어의 다른 모든 요소를 유사한 방식으로 지배하는 일정한 수의 엄밀한 법칙을 낱말이 따른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했다. 그로부터 언어의 고유한 일관성을 결정하고 보장하는 문법 구조의 일부분인 범위 내에서만 재현과 결부된다. 낱말이 알려 주는 바를 낱말이 나타낼 수 있으려면, 낱말이 자체에 대해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결정적인 문법의 전체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언어 연구에서의 시간과 역사의 조건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존재론적 **재-분절**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지식들인 생물학, 정치경제학, 언어학(비교문법) 등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다.

4. 동양(조선)에서의 분류와 지식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존재론적 재분절과 지식의 탄생을 자연과학과 인간과학이라는 이질적인 영역들에서 공히 확인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렇

²⁷⁾ Schlegel (2013).

다면 이런 논의는 서양의 학문에서만 가능할까? 우리는 동양의 학문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여러 시대, 여러 영역에서 유사한 논리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논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선 시대에 있어 분류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지식의 탄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논지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²⁸⁾

조선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경문의 초록과 풍송(諷誦)을 학습의 주요한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이를테면 1790년에 정조는 도문학(道問學)과 관련하여, 1) 경전을 궁구하고 옛날의 도를 배워서 성인의 정미한 경지를 엿보는 일 2) 널리 인증하고 밝게 변별하여 천고에 판가름 나지 않았던 안건을 논파하는 일 3) 호방하고 웅장한 시문으로 빼어난 재주를 토로하여 작가의 동산에 거닐어 조화공의 오묘한 기법을 빼앗는 일 등 세 가지를 유쾌한 일로 꼽았다.²⁹⁾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모두 추구한 지적 활동의 이상이 었다. 그런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지식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하여 문헌용어(文獻用語)나 생활용어, 경험사실들을 초록(抄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하였다. 그 결과물은 대개 어휘나 개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시문을 실는 ‘재문(載文)’의 체제, 다시 말해 유서(類書)로 결집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재문’의 체제를 취하지 않고 대응하는 순수국어의 제시, 간단한 정의, 어휘의 계열화를 이루는 어휘집을 편성하는 예도 나왔고, 반대로 ‘재문’에 머물지 않고 문헌 고증과 안설(按說)을 첨부하는 ‘잡고(雜考)’의 체제를 지향한 예들도 많이 나왔다. 평면적으로 보면, 초록의 내용을 일정한 분류 원칙에 따라 체계화하면 유서가 되고, 초록의 어휘나 개념만을 정리하면 물명류(物名類, 어휘집)가 되고, 반대로 유서에 변증을 부기하면 잡고(雜考)가 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넓은 의미의 유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어휘를 정리하면서 관련 있는 문헌 사실을 집록하는 유서 이외에도, 사물의 개념이나 문헌의 한자어들을 일정하게 정의하고 정리한 물명류와 사항의 **고증을 중시하는** 잡고가

²⁸⁾ 심경호 (2013).

²⁹⁾ 正祖,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2 文學 2. “予嘗以爲, 窮經學古, 而窺聖人精微之蘊, 博引明辨, 而破千古不決之案, 宏詞雄文, 吐露雋穎, 而步作家之苑, 奪造化之妙, 此乃宇宙間三快事.”(徐浩修 기록)

함께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성리학 시대에 사물들을 분류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분류체계의 등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가시성(visibility)’을 중시하는 근대성의 전체 흐름과도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유서, 물명류, 잡고가 발달한 사상적 배경은 사물의 이치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류 형식의 다양한 실험은 바로 조선 후기에 태동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 개념**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학자들은 성리학적 체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험적 지식체계를 수립하고자 했고, 이런 지식체계의 수립은 바로 존재에 대한 성리학적 분류체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분류체계**가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존재론적 재분류와 지식의 탄생 사이에서 성립하는 핵심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4.1 조선에서의 유서의 발달

본래 동양에서 사물들을 분류하는 서적은 ‘유서’라 불렸다. 유서 그 자체도 몇 가지로 분류된다. 유서는 대개 우주 및 인간 삶에 관한 모든 사물을 포괄해서 각 세목 아래에 그에 관한 단편적인 문구를 집록—이것을 ‘재문’이라 한다—하고 그 다음에 시문 1·2 내지 4·5구를 곁들였다. ‘유서’라고 통칭되는 전적들을 살펴보면 대개 사물장실검색유서(事物掌實檢索類書), 사물기원검색유서(事物起源檢索類書), 문장사조검색유서(文章辭藻檢索類書) 등의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서는 사물들에 대한 실제 경험을 분류해 놓은 유서이고, 두 번째 것은 사물들의 시간적 유래에 초점을 맞춘 유서이며, 세 번째 것은 인간이 남긴 언어들에 대한 유서이다. 중국에서는 특히 역사·문물제도·문헌을 통괄할 수 있는 9가지의 유서를 총칭하여 ‘구통(九通)’이라고 한다. 중국의 유서들은 여러 경로로 수입되어 조선후기의 학문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 유서의 역사상 최초의 편찬물은 고려 의종 때 문하시랑평장사 최윤의(崔允儀) 등이 엮은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인 듯하다. 진양공 최이(崔怡)를 대신하여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신인상정예문발미(新印詳定禮文跋尾)』는 1234년 경 강화도에서 『고금상정예문』 28부를 찍은 사실을

밝혀두었다. 『상정예문』은 최윤의 등 17명이 왕명으로 고금의 예의를 수집, 고증하여 50권으로 엮은 전례서(典禮書)로, 고금의 예문을 모아 편찬하는 방식은 유서의 제제를 취하였을 것이다. 조선중기 김휴(金休)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에 의하면, 이 책은 역대 조종(祖宗)의 헌장(憲章)을 모으고, 한국의 고금 예의와 중국 당나라의 예의를 참작하여 왕실의 의례와 백관의 복장 등을 다루었다고 하였다. 이 무렵 중국에서 유서들을 수입하여 활용하는 예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14세기 전반 고려의 문인들은 원나라 제과(制科)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이때 과거 준비용으로 원나라에서 간행된 유서들이 그 응시자들 사이에 크게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미 조선 초기에 정도전(鄭道傳)은 『경제문감(經濟文鑑)』(1395)을 편찬할 때 중국의 유서인 『문헌통고(文獻通考)』와 『산당고색(山堂考索)』을 상당히 참고하였다.³⁰⁾

단,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유서들은 모두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들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1554년(명종 9) 어숙권(魚叔權)이 엮은 『교사촬요(攷事撮要)』와 선조 때 권문해(權文海)가 엮은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을 들 수 있다. 어숙권의 『교사촬요』는 사대교린(事大交鄰)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타 여러 시사 관련 상식들을 포함한 저술이다.³¹⁾ 『교사촬요』는 조선후기에도 문물제도의 고실(考實)에 긴요한 서적으로 간주되었다. 권문해는 대구의 부사(府使)로 있을 때인 1589년(선조 22) 『대동운부군옥』 20권 20책을 편찬하였다.³²⁾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은 우리나라 고사와 물명을 대상으로 충실히 전거를 밝힌 사전인데, 『운부군옥』의 체제를 취하여 표제항을 운목(韻目) 별로 나열하였다. 유서의 분부(分部) 방식을 취하지 않은 유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나온 유서들은 내용과 형식들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대략 10개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 1) 일화집성 유서: 『속몽구(續蒙求)』, 2) 한국의 시사 상식 집성 유서: 『교사촬요(攷事撮要)』, 3) 한국의 고사 집성 유서: 『대동운부군옥』, 4) 중국 유서의 휘집 유서: 『유원총보(類苑叢寶)』·

30) 도현철 (2003).

31) 김치우 (1999).

32) 단, 목판으로 간행된 것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이다.

『신보휘어(新補彙語)』·『고금설원(古今說苑)』·『잡동산이(雜同散異)』·『문시(文始)』, 4) 한중 문헌의 회집 유서: 『견첩록(見捷錄)』, 5) 경서 및 주자학 관련 전고류 유서, 6) 역사 관련 유서: 『사요취선(史要聚選)』·『역대회령(歷代會靈)』, 7) 천문 관련 유서: 『정관편(井觀篇)』, 8) 가정생활용 유서: 『규합총서(閨閣叢書)』·『청규박물지(淸閨博物志)』, 9) 국고 전장의 유서: 『고사신서(攷事新書)』·『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체로 보아 임진왜란 이후 처음에는 중국 유서를 회집한 유서들이 나왔다. 김진(金鎭)의 『신보휘어』가 그 효시이며, 이후金玉(金堉)의 『유원총보』, 오명리(吳命鼈)의 『고금설원(고금세원)』(1654년 편), 심능숙(沈能淑)의 『문시』가 나왔다. 『신보휘어』는 분운(分韻) 체제이지만 『유원총보』와 『고금설원』은 분문(分門) 체제이다. 또 한국과 중국의 유서를 종합하는 유서도 이루어졌다. 안정복(安鼎福)의 『잡동산이』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근세에는 중국 유서와 한국 유서를 종합한 『견첩록』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중국 유서를 참조하여 정보를 집적하는 방식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말까지 계속되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여러 형태의 독자적 유서들도 출현하였다. 우선 17세기에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峰類說)』 20권 10책을 엮었고, 영조 때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僿說)』 30권 30책, 19세기 중반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60책, 고종 때 이우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 39권 33책 등도 한국 고금의 정치·사회·경제·지리·풍속·언어·역사 등에 관한 유서들이다.

조선후기에는 국가 주도로 유서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영조 때 처음 편찬되기 시작한 『문헌비고(文獻備考)』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9통 혹은 10통, 일통지, 그리고 『삼재도회』가 편찬된 것과도 비견된다. 영조 45~46년(1669~1770)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등 25인은 왕명에 따라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우리의 문화 제반에 관한 자료를 집성하여 『동국문헌비고』 100권 40책을 편찬하였다. 13고 1백권 40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³³⁾ 분문과 문헌 집성에는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문화 전반에 관한

33) 『英祖實錄』 권113, 45년(1769) 12월 24일(임신). “命刊『東國文獻備考』. 其書凡例, 悉倣『文獻通考』, 而只蒐輯我朝事. 選文學之臣, 以領之晝夜董役.”; 『英祖實錄』 권114, 46년(1770) 윤5월 16일(신유). “『文獻備考』「象緯考」成.

자료를 집성하려는 왕조의 의지가 작용하였다. 이것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1908년(융희 2)에 홍문관에서 『증보문헌비고』 250권 40책으로 간행되었다.

영조 연간 이후에 국가제도의 연혁을 총정리하려는 시도가 조정에서도 사대부 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이러한 책들은 대개 간행되지 않고 집안에서 열람되었다. 따라서 유서를 통하여 지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유서의 편찬은 거의 동시병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면 조선후기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지식정보의 정리와 분류에 고심하게 되는 사고의 변환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4.2 조선 학자들의 경험적 분류체계

한국의 고대와 중세에는 한자한문 문헌의 수입과 저작이 많아짐에 따라 한문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협주(夾註)를 활용하였다. 한자 어휘가 증가된 시점에 정치행정 용례집을 편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는 고대와 중세의 사전이 남아 있지 않지만, 9세기에 불경음의(佛經音義)가 존재하였으므로 분류식 사전도 이른 시기에 나왔으리라 추정된다. 또한 고유의 의서(醫書)를 엮어 약명(藥名)과 의방(醫方)을 설명하기 위해 사전적 정의를 부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자 어휘를 정리한 물명류도 유서와 마찬가지로 분문(分門)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유형의 유서들은 기본적으로, 사의(詞義), 성어(成語), 전고(典故)를 해석하는 사서(詞書)로서의 기능을 지녔다. ‘사서’란 중국 고전문헌학에서 말하는 자의(字義)의 류, 즉 어의분류사전을 가리키며, 『이아(爾雅)』가 그 초기의 예에 속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글자의 성운(聲韻)을 분석한 운서(韻書)도 각 글자마다 훈해(訓解)를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사서’의 성질을 지녔다. 조선의 물명류는 대구조 면에서는 운서보다 유서의 체제를 취하였다. 다만 각 어휘의 훈석은 출전을 밝히지

上親受崇政殿，賞編輯堂郎有差。上以『備考』之成，基於申景濬『疆域志』，特命加資。”；『英祖實錄』 권115, 46년(1770) 8월 5일(무인). “編輯廳堂郎，陪進新刊『東國文獻備考』四十卷，上御崇政殿月臺，降階親受之，監印堂上洪名漢·李潭竝加資，餘各賞資有差。”

않아서, 유서의 혼석 방식이나 사서의 상주본(詳註本)과는 다르다. 물명류는 매우 간단한 단어장의 형태이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물명류는 새로운 분류를 고안하고 기왕의 분류목을 조정하는 등 사물들을 보는 방식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생활세계의 복잡한 사항들을 종래의 관념적, 선형적 분류만으로는 정리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명류의 편찬 체제에 나타난 분류 방식의 변화는 독자적 유서의 항목 분류 방식의 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변화는 곧 성리학적인 사변체계로부터 경험적 지식 추구로의 이행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 후기의 유서는 중국 유서나 전적의 내용을 재편집하고 부를 세워 정리하였다. 물론, 조선시대에 많이 이용된 유서의 하나인 『태평어람(太平御覽)』 54부는 조선후기 유서 체제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조선후기의 유서는 상당수가 천부-지부(天部-地部)의 대립유목을 취하지, 건도-곤상(乾道-坤象)의 대립유목을 취하는 일이 없는데, 그것은 아마도 『태평어람』의 분문(分門)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사실, 조선의 지식과 사물의 분류 방식에서 가장 널리 참고가 된 것은 『태평어람』의 55부나 『옥해(玉海)』의 21부 등 중국 유서의 분목(分目)이었다. 하지만 조선 학자들은 이런 유서들을 참조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분류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조선 시대에 조선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잡고류 유서인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1614)은 20권 25부문에 3,435항목을 나열하였다. 그 분목은 다음과 같다: 천문(天文), 시령(時令), 재이(災異), 지리(地理), 제국(諸國), 군도(君道), 병정(兵政), 관직(官職), 유도(儒道), 경서(經書), 문자(文字), 문장(文章), 인물(人物), 성행(性行), 신형(身形), 어언(語言), 인사(人事), 잡사(雜事), 기예(技藝), 외도(外道), 궁실(宮室), 복용(服用), 식물(食物), 화목(卉木), 금충(禽蟲).

이 분류에서 천문-지리의 문목은 『옥해』를 따랐지만, 군왕지치(君王之治)에 한정하지 않고 인사, 잡사와 조수초목충어(鳥獸草木蟲魚)에 이르는 분류목을 설정한 것은 『태평어람』의 분류목을 의식한 듯하다.

한편 18세기에 이르러 이익은 잡고류 유서인 『성호사설』 30권을 편찬하였다. 그 제자 안정복(安鼎福)이 원고를 정리하였는데, 안정복은 전체를 5

개 부문으로 줄인 반면, 소목차는 상세하게 나누었다. 이는 사물들을 분류함에 있어 대분류와 소분류의 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짜는 방식을 개발하였음을 뜻한다.

4.3 새로운 유서들과 경험지(經驗知)의 형성

근대 이전의 학자들은 공부할 때 우선 초록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유서를 만드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초록한 정보들을 체계화하고 사실을 확인하여 논증하는 일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곧,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생활에 밀접한 사물에 대해서만 각별히 고증을 한 것이 아니라, 경서의 자구, 역사의 사실, 민족문화의 제상(諸相) 등 여러 사실들에 대해 문헌의 오류를 비판하고 실상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박지원(朴趾源)의 『동란섭필(銅蘭涉筆)』과 『구외이문(口外異聞)』은 『열하일기』에 들어 있는데, 그 자체가 고증적 유서이다. 조선후기의 일부 지식인들은 변증적 논문들을 집성하여 유별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즉, 변증적 수필의 집성 형태로 이루어진 유서로, 『지봉유설』과 『성호사설』 이후 여러 편자가 나왔다.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관찰과 분석을 중시하게 된 기점에서 이루어진 백과사전으로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조선후기의 학자들은 기본적인 학문방법으로 문헌자료를 초록하고 외래의 유서를 참조하여 분류목을 조정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초록한 정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계화하여 유서로 엮거나 변증을 가하여 잡고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곧, 유형원(柳馨遠, 1622~1673) 이후로 지식인들은 인간과 역사(현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사물을 관찰하고 경험사실을 분석하였으며, 문헌정보와 경험사실을 분류법을 활용해서 체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익의 『성호사설』에서부터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가 천문·역법·역사·지리·문학·음운·종교·풍속·언어·고사 등 갖가지 영역의 사실을 기록하고 변증하였다.³⁴⁾ 이들은 개별적인 사물들에 모두 지극한 이치가 담겨 있다고 보는 성리학자의 관점을 발전시

34) 심경호 (2003).

키면서 관념성을 배격하고 경험사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탐구의 학’을 발전시켰다.

조선후기 이덕무의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등 많은 잡저류 저술은 필기(筆記)와 유서의 경계에 있다. 유서는 정보의 취합 및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만 필기는 정보에 대한 흥미에 더 초점이 놓인다. 사실 『이목구심서』는 연역적인 구성을 하지 않고 취득 정보를 하나의 새로운 지식경험으로 간주하여 그것들을 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덕무는 ‘이문(耳聞)’을 중시하였는데, 그것은 ‘도문학(道問學)’과 ‘존덕성(尊德性)’의 두 공부 가운데 ‘도문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후기의 많은 필기, 혹은 유서들은 필기와 유서의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많다. 이것들은 기존의 범주를 활용하지 않고 경험지식을 최대한 흡수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저술을 총서의 형태로 엮기도 하였다. 허목(許穆)은 스스로의 시문 저술을 모아 『기언(記言)』을 편찬하면서 유서의 체제를 취하기까지 하였다.³⁵⁾ 그리고 18~9세기의 일부 지식인들은 민족문화의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총서를 편찬하려는 기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또한 정사 자료보다는 야사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무대에서 활동한 다양한 인물들에 관한 자료들을 분류하여 편찬하고, 사화나 당쟁 등 정치사건의 자료들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홍경모(洪敬謨)가 『대동장고(大東掌故)』의 ‘보편’을 기초로 새로운 종합 인물지를 편찬하려고 한 것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후기의 지식정보와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은 선형적 전제와 경험적 검증의 두 축 사이에서 진동하였다. 여기서는 조선후기의 물명류와 유서의 주요한 성과에 대해 그 특징을 개괄하였는데, 그 분류의 방식은 물명류와 유서의 세계에서 완결된 것이 아니었다. 인물록과 총서와 같이 각각의 특색 있는 자료들을 휘집(彙集)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분류 의식이 태동되어

35) 許穆, 『眉叟記言』 「凡例」 제1조항. “記言一書, 有原集, 有續集. 上篇中篇下篇雜篇內篇外篇等篇, 甲寅以前所著, 而謂之原集者也. 續集散稿敘述等篇, 甲寅以後所著, 而謂之續集者也. 其序列標題, 別用事例若類書然者, 皆先生所自纂定者, 故一依先生成規入梓.”

있었다.

유서 가운데는 통서(通書)의 영향으로 잡박한 내용도 있다. 이를테면 박흥생(朴興生)의 『촬요신서(撮要新書)』에는 원나라 때 유행하여 당시 일상 생활에서도 활용되었던 통서의 내용을 정리한 듯한 내용이 있다. 중국의 대중사회에서는 어떤 일이든 길흉을 점쳐서 길일을 택하여 행동해 왔는데, 그 지표가 되는 것이 통서이다. 이것은 일종의 역서(曆書)이면서 일상의 상식을 모두 포함하였다. 아마도 원나라 때 유행한 통서의 전통이 조선 초에까지 이어졌던 듯다. 뒤에 홍만선(洪萬選)도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택길의 점법을 대대적으로 소개하였다. 『산림경제』의 「잡방」에 ‘노비에게 도망할 마음이 없게 하는 법[使奴婢無逃心方]’이 있다. 이렇게 조선후기의 유서는 문헌정보와 경험사실을 재해석하여 유별화함으로써 지식을 일정한 체계로 구축하려 하였지만 그 문헌정보와 경험사실의 재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유서의 분류 체계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문헌자료는 물론 경험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증이 적극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조선의 학문이 성리학적 분류체계로부터 경험적 분류체계로의 거대한 전환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조선 후기의 새로운 지식은 존재론적 재-분절로부터 탄생하였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분류의 문제에서 ‘자연의 빛’을 중시한다거나 자연중의 원리를 상상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 지식인들은 지식과 사물의 명료한 인식과 상호 연관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고투하였으며, 그 고투가 곧 종래의 고루한 인습이나 권위적 논리를 부정하는 힘을 드러내었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밝힌 것은 학문/사유의 역사에서 어떤 새로운 존재론적 재분절화가 도래하면, 그러한 재분절화를 통대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가설을 현대 서양의 자연과학, 근현대 서양의 인간과학, 그리고 근대 동양의 학문 일반이라는 이질

적인 세 영역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의 첫 번째 대목에서는 자연과학을 소재로 우리 논지의 기본 뼈대에 대한 개념적 분석에 역점을 두었고, 두 번째 대목에서는 서양 인간과학을 소재로 실제 역사에서의 존재론적 재-분류와 지식 탄생의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세 번째 대목에서는 이미 확립된 논지를 조선 후기 문헌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했다.

우리의 논의가 앞으로 보충해야 할 핵심적인 논의는 왜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서 사물을 분류해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논의는 철학적 논의를 넘어 매우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일 것이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해명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英祖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영인, 1968.
-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2001, pp. 262-267.
- 『眉叟記言』,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1988, pp. 98-99.
- 군지(郡司) (2013), 『생명이론』, 박철은 옮김, 그린비.
- 김치우 (1999),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 冊板目錄 所載의 傳存本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도현철 (2003), 「『경제문감』의 인용전거로 본 정도전의 정치사상」, 『역사학보』 165권, pp. 69-102.
- 미셸 푸코 (2004),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 심경호 (2003), 「박지원과 이덕무의 戲文 교환에 대하여: 박지원의 『산해경』 東荒經 補經과 이덕무의 注에 나타난 지식론의 문제와 훈고학의 해학적 전용 방식, 그리고 척독 교환의 인간학적 의의」, 『한국한문학회연구』 31권, 한국한문학회.
- _____ (2013), 『한국한문기초학사』 1-3, 태학사.
- 이상욱 (2014), 「갈릴레오의 과학연구: 과학철학적 STS(과학기술학) 교육의 한 사례」, 『과학철학』 17권 2호, pp. 127-151.
- 이정우 (2011), 『객관적 선험철학 시론』, 그린비, 1부.
- 프랑수아 자콥 (2005), 『생명의 논리』, 이정우 옮김, 민음사.
- Boyd, R. (1999), "Kinds, Complexity and Multiple Realizability", *Philosophical Studies* 95: pp. 67-98.
- Chang, H. (2012), *Is Water H₂O?: Evidence, Realism and Pluralism*, London: Springer.
- Daston, L. and Park, C. (1998), *Wonders and the Order of Nature 1150-1750*, New York: Zone Books.
- Dawkins, R. (1996), *The Blind Watchmaker*, subsequent edition, New York: W.W. Norton.
- Dupré, J. (1993), *The Disorder of Things: Metaphysical Foundations of the Disunity of Scienc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Ereshefsky, M. (1998), "Species Pluralism and Anti-Realism", *Philosophy of Science* 65(1): pp. 103-20.
- Fodor, J. A. (1974), "Special Sciences or the Disunity of the Sciences as a Working Hypothesis", *Synthese* 28: pp. 97-115.
- (1997), "Special Sciences: Still Autonomous After all these Years", *Philosophical Perspectives* 11: pp. 149-63.
- Goodman, N. (1978), *Ways of Worldmaking*, Indianapolis, IN: Hackett.
- Hacking, I. (2004), *Historical Ont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ndry, R. (2006), "Elements, Compounds and Other Chemical Kinds", *Philosophy of Science* 73: pp. 864-75.
- Kitcher, P. (1984), "Species", *Philosophy of Science* 51: pp. 308-33.
- Kripke, S. (1980), *Naming and Necessity*, Oxford: Basil Blackwell.
- Kuhn, T. (2000), *The Road Since Structure*,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Mayr, E. (1969), *Principles of Systematic Biology*, New York: McGraw Hill.
- Needham, P. (2002), "The Discovery that Water is H₂O",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16: pp. 205-26.
- Putnam, H. (1975),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erri, E. (2011), *The Periodic Tabl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legel, F. (2013), *The Philosophy of Life,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 a Course of Lecture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Serres M. (1968), *Le système de Leibniz*, PUF.

- Smolin, L. (2006), *Trouble with Physics: The Rise of String Theory, the Fall of a Science, and What Comes Next*, Boston: A Mariner Book.
- Sober, E. (1980), "Evolution, Population Thinking and Essentialism", *Philosophy of Science* 47: pp. 250-83.
- Westfall, R. S. (1983), *Never at Rest: A Biography of Isaac New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i, S. W. (2003), "Reduction of Thermodynamics: A Few Problems", *Philosophy of Science* 70: pp. 1028-38.

논문 투고일	2014. 10. 21
심사 완료일	2014. 10. 27
게재 확정일	2014. 11. 03

Diverse Classification, Principles, and Birth of Knowledge

Jeong-Woo Lee · Kyung Ho Sim · Sang Wook Yi

Any classification of objects in the world is necessarily linked to the birth of its accompanied knowledge. We investigate diverse classifying efforts in Eastern and Western thoughts, and argue that behind the confusing diversity of alternating classification systems, we can recognize certain principles which guided the entire classification efforts. We also try to show that the principl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birth of specific kinds of knowledge. In order to achieve this, we look at three areas of knowledge: current natural sciences, western human sciences and Korean Confucianism in Chosun period. First, we examine whether ‘natural kinds’ concept is adequate to explain the practice of current natural scientific research. Second, we analyze how western human science had been established through ‘ontological re-articulation’ of its objects. Lastly, we discuss how the transition from Sung Confucianistic classification to ‘empirical’ classification was achieved in the taxonomic texts of Chosun period. We endeavored to illustrate how some guiding ideas or principles had shaped the resulting classification systems in each case.

Key Words: Classification, Birth of knowledge, Natural kinds, Ontological re-articulation, Taxonomic texts